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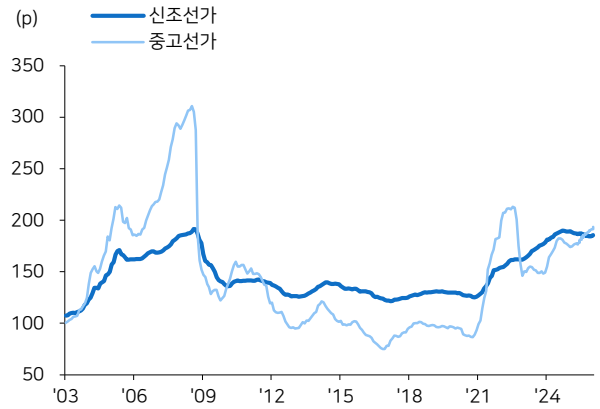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1. 16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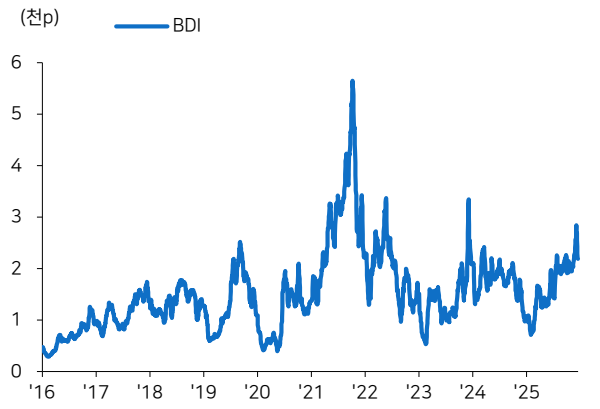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6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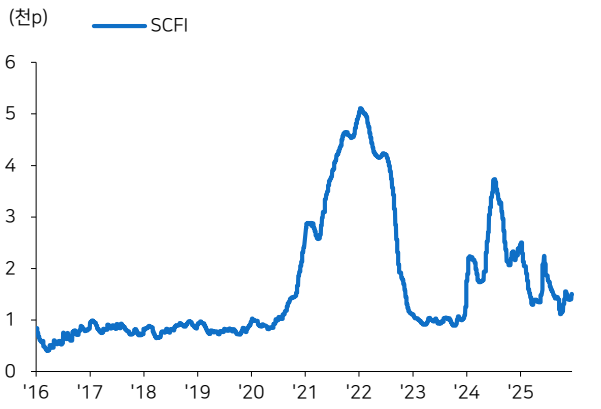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2.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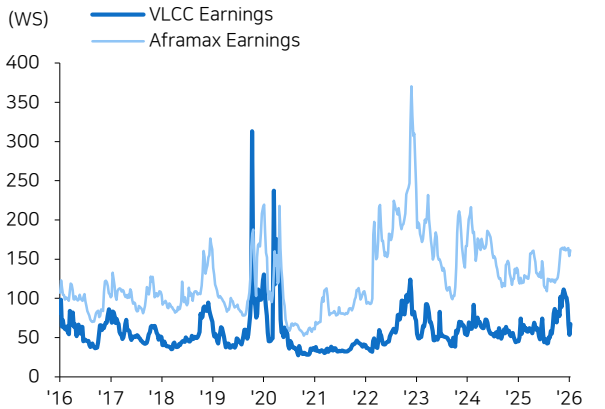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328.0p (-7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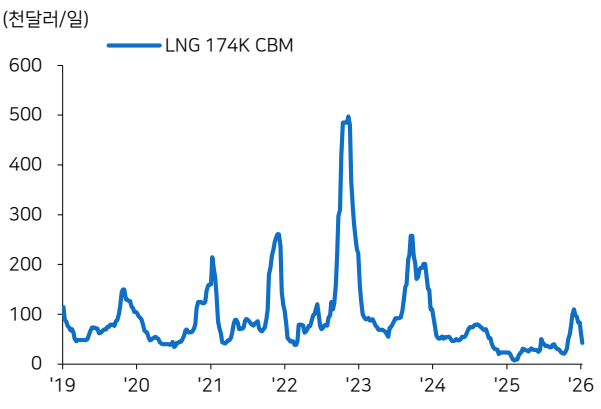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647.4p (-8.9p WoW)



VLCC Spot Rate 67.5WS (+14.0p WoW)



LNG Spot 운임 42.5천달러 (-18.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 캐나다 노바스코샤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잠수함 수주전 측면 지원 **더구루**

한화솔루션 자회사 Q ENERGY와 한화오션이 캐나다 노바스코샤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권 입찰에 참여한다고 보도됨. 재생에너지 전문성과 설계 · 조달 · 시공 · 설치 · 운영 전 주기 역량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전망이라고 전해짐. 노바스코샤 주정부는 2030년까지 약 600억 달러를 투자해 5GW 규모 해상풍력 설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짐. 이번 해상풍력 참여는 한화그룹이 캐나다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보라고 보도됨. (https://buly.kr/9iHMEPe)

Aygaz breaks into large gas carriers with VLGC order at HD Hyundai **TradeWinds**

터키 최대 연료 운송 기업 중 하나인 Aygaz가 HD현대삼호와 93,000cbm급 LPG 이중연료 VLGC 1척에 대해 1억 1,900만 달러 규모 신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짐. 해당 선박은 2028년 2분기 인도 예정이며, 이번 계약은 LPG 차량 운송 위주였던 기업이 2024년 6월 이후로 펼쳐온 해상 부문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알려짐. 또한 Aygaz는 방글라데시 United Aygaz LPG 지분 50% 투자 등 아시아 확장을 병행하며 국제 LPG 사업자로 도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https://buly.kr/6ByCpFq)

한영 방산군수위원회...잠수함·전투기 등 방산협력 논의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영국 국방부와 제27차 한-영 방산 · 군수공동위원회를 영국에서 개최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짐. 양국은 공동위에서 한국 한화오션과 영국 방산업체 Babcock International 간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는데, 잠수함 유지 · 보수 · 정비(MRO) 사업에서 밥콕과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었다고 보도됨. (https://buly.kr/882XSIS)

안규백 "加잠수함 수주전, 무엇을 주느냐로 판세 달라진다" **디지털데일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산업적 파급효과를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따라 한국과 독일 간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짐. 안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속에 선정 확률이 반반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다부처가 총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주느냐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강조했다고 보도됨.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 독일에 자동차 공장 설립 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이번 사업 수주가 현대차와 폭스바겐 대리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전해짐. 또한 연내 KDDX 사업 착수와 유럽 방산시장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알려짐. (https://buly.kr/90cKMUU)

Woodside to keep Japan warm in winter **Upstream**

Woodside Energy가 일본의 JERA와 북반구 겨울철 수요 피크 기간에 LNG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부터 5년간 연간 3카고 약 200,000톤을 공급하는 조건이라고 전해짐. 해당 물량은 12월부터 2월까지 DES 조건으로 일본에 공급되며, Scarborough, North West Shelf, Pluto LNG와 향후 가동될 Louisiana LNG를 포함한 Woodside Energy의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에서 조달될 예정으로 알려짐. Woodside와 JERA는 일본 정부와 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구축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논의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은 협력의 연장선으로 보도됨. (https://buly.kr/5UJAjyt)

DH Shipbuilding scoops up tanker orders worth $340m **TradeWinds**

대한조선이 약 3억 4,000만 달러 규모의 suezmax급 탱커 4척을 수주했으며 발주처는 Nordic American Tankers와 미공개 그리스 해운사 각 2척씩으로 전해짐. 해당 선박은 척당 약 8,500만 달러 수준의 기존 연료 방식 선박으로 기존 모델 대비 연료 효율과 운항 성능이 3% 이상 개선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이번 계약을 통해 대한조선은 2026년 수주 목표의 약 30%를 확보했으며 두 발주사는 모두 신규 고객이라고 보도됨. (https://buly.kr/5fDviOO)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